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768호 (2021년 7월 첫째 주) 정책정보센터 Tour.go.kr

[인천광역시] 대한민국 제1호 스마트 관광플랫폼 '인천e지' 출시 ·····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하반기 경기 활성화 위해 2차 추경 3,007억 원 편성 ····· 4
[국토교통부] 코로나 위기극복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추가감면 연장 ····· 7
[해양수산부] 코로나 이후 시대 국내 크루즈 산업 재도약 준비한다 ····· 9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방문 전 이용객 혼잡도 확인은 필수! ····· 11
[서울특별시] 서울시, 시민과 함께 찾은 외국어 표기오류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 15
[부산광역시] 부산시,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신규취항 항공사 공모」 실시 ····· 17
[경기도] 국내여행객, 지난해 경기도 4천500만회 방문. 2년 연속 전국 최다 ····· 19
[강원도] 강원도 5월 관광, 야외 안심관광지와 킬러콘텐츠로 방문객 증가 ····· 21
[충청북도] 충북도·한국관광공사·티맵, 충북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22
[충청남도] 발전소에 묻힌 해수욕장, 관광거점 부활 첫 발 ····· 23
[전라북도] 전북만의 특색있는 유니크베뉴 5개소 선정 ····· 25
[전라남도] 전남도,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총력 대응 ····· 28

[인천광역시] 대한민국 제1호 스마트 관광플랫폼 '인천e지' 출시

- 모바일 하나로 이지하게 여행하고 싶다면 앱스토어에서 인천e지 다운로드
- 관광분야에 디지털 경쟁력 강화로 성장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 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와 인천관광공사(민민홍 사장)는 인천 개항장 일대를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앱 하나로 즐길 수 있는 '인천e지 스마트 관광플랫폼'의 정식 서비스를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 '인천e지 스마트 관광플랫폼'은 지난 2020년 9월 인천이 대한민국 제1호 스마트관광도시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중구청, 인천관광공사 등 9개의 민간 컨소시엄사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한 ICT기반 스마트 여행 어플리케이션으로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 개인화된 인공지능(AI) 추천 서비스

ㅇ 인천e지 앱의 인공지능(AI) 여행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설문을 통해 나의 여행취향·동선·일정·동반자 유형 등을 고려한 개인화된 여행패스를 추천받을 수 있고 관광객은 개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패스를 수정할 수 있다.

ㅇ 나만의 패스가 생성되면 맞춤형 여행가이드북과 최적의 동선 안내가 추천되며, 관광객은 지도에 따라 주변 맛집·카페·관광지·숙박 등의 정보를 보고 각 장소에서 제공되는 스마트 편의 서비스(오디오가이드, 쿠폰 및 결제서비스, 짐보관, 모빌리티 등)를 원스탑으로 즐길 수 있다.

□ 앱 하나로 해결되는 편의 서비스

ㅇ 모바일 하나로 날씨와 혼잡도를 파악해 여행할 수 있고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통해 맛집에서 줄을 서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외국인도 손쉽게 모빌리티 예약(호출)이 가능하며 여행지에서는 짐을 맡기고 두 손 가볍게 여행할 수 있다. 여행 중에 겪는 불편함은 실시간 다국어 문자채팅 서비스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ㅇ 개항장 일대를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0여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곳곳에 설치했으며, 인천e지 앱의 서비스인 AR/VR 체험, 오디오가이드 등을 데이터 사용의 부담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 19세기 시간여행 콘텐츠

ㅇ 개항장 일대에서는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의 스마트기술을 통한 차별화된 시

간여행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대불호텔전시관, 근대건축전시관, 한중원 등 개항장 일대에서는 과거 실존 인물이 AR도슨트로 되살아나 장소의 역사적 배경을 생동감 있게 설명해준다.

ㅇ 제물포 구락부와 짜장면 박물관에서는 인천e지 앱과 더불어 현장에 비치된 VR기기를 통해 더욱더 몰입감 있는 시간여행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자유공원전망대에서는 19세기 당시의 개항장 모습을 360도 파노라믹 뷰로 감상할 수 있다.

□ 데이터 기반 관광 활성화

ㅇ 인천e지 앱과 개항장 일대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수집된 이용객 관광 데이터는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내에 저장되고, 정제·통합 과정을 통해 관광 마케팅 및 지역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적극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 조승환 시 재생콘텐츠과장은 “새롭게 출시된 인천e지 스마트 관광플랫폼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된 경험과 편리함을, 지역에는 디지털 경쟁력 강화로 인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재생콘텐츠과(032-458-7333) | 게시일 : 2021.06.3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하반기 경기 활성화 위해 2차 추경 3,007억 원 편성

- 문화예술·체육·관광 고용지원 및 영화체육 등 소비할인권 지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신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2021년 제2차 추경 예산 3,007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관광·체육업계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영화·프로스포츠 관람 소비할인권 등 1,507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과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500억 원을 확보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고 있다.

예술·관광·체육 채용 지원 등에 1,023억 원 투입, 일자리 약 27,740명 지원 예정

□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확대 투입(272억 원)하고, 공연예술 인력 지원(115억 원) 및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확대,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개최 지원 등으로 침체된 공연업계 활성화에 가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여행업계 전문인력 채용 및 공유공간 지원(151억 원), 관광지 방역 지원(252억 원), 민간체육시설 고용 지원(134억 원) 사업을 통해 점차 활력을 되찾고 있는 관광·체육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 고용 지원 및 피해 극복 사업(안) >

사 업	내 용	2차 추경(안)	수혜인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272억 원	9,000명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연극·뮤지컬·음악·국악·무용 분야 인력 지원	115억 원	2,000명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우수 공연예술 창작·개최 지원(30개 단체)	30억 원	5,940명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개최 지원(400팀)	39억 원	1,200명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활성화	소규모 대중음악공연(인디공연 등) 개최 지원	30억 원	3,000명
여행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 및 공유공간 지원	151억 원	1,600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관광지 방역 관리 및 점검 인력지원	252억 원	3,000명
민간실내체육시설 고용 지원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등 고용지원	134억 원	2,000명

* 예술인창작준비금·공연예술인력지원·대한민국공연예술제·문화가있는날·체육시설 고용 지원은 증액 사업으로, '21년 기존 사업(1차 추경 포함, 총 1,900억 원) 추진상황 등 고려해 확대

영화·체육·관광 소비 및 문화향유 확대에 484억 원 투입, 341만 5천 명 혜택

□ 문체부는 하반기 내수활성화와 국민 일상회복을 위해 영화 관람(100억 원, 167만 명), 민간체육시설이용(124억 원, 40만 명),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77억 원, 100만 명), 국내 관광 교통 할인(42억 원, 14만 5천명) 등 소비할인권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을 추가 발행(141억 원, 20만 명)해 저소득층의 문화여가 소비 지원을 확대한다.

< 소비촉진·문화향유 사업(안) >

사 업	내 용	2차 추경(안)	수혜인원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영화 1인당 6천 원 할인쿠폰 제공	100억 원	167만 명
민간체육시설이용 활성화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 시 3만 원 환급	124억 원	40만 명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야구·축구·농구·배구 등 프로스포츠 관람권 50% 할인	77억 원	100만 명
국내관광(안전여행) 캠페인	캠페인 기간 국내 여행 교통비 할인(철도·버스)	42억 원	14만 5천 명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1인당 10만 원) 발급	141억 원	20만 명

* 민간체육시설이용활성화·통합문화이용권은 증액사업, '21년 기존사업(1,441억 원) 추진상황 등 고려해 확대

□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그동안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백신접종률과 방역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발행·사용이 일시 중단된 기존 소비할인권(약 676만 장)*도 재개 여건을 고려해 신규 소비할인권과 함께 신속하게 집행해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기존 소비할인권 재개(안): ▲ 숙박 193만 장, ▲ 공연 175만 장, ▲ 전시 345만 장, ▲ 체육시설 60만 장 등

방역 안전에 기반한 관광업계 회복 지원을 위한 관광기금 재원 확충

□ 또한 문체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500억 원을 확보해 관광기금의 재원을 확충한다. 관광사업체 융자 및 고용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기반인 관광기금은 최근 출국납부금 감소로 인한 수입 급감과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지출 확대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추경으로 추가 자금 1,500억 원을 확보한 만큼, 방역 안전에 기반한 관광 생태계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시행 등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업계 회복 기여

□ 정부 전체 차원의 추경안에는 희망회복자금 사업 등 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포함된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 역시 소상공인·소기업이 많고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문화 여가 소비 확대를 포함한 경기 활성화 사업을 준비한 만큼, 신속하고 완전한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소비할인권 등 내수 촉진을 위한 사업은 백신 접종률과 방역상황을 고려해 안전하게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044-203-2233) | 게시일 : 2021.07.01.)

[국토교통부] 코로나 위기극복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추가감면 연장

- 연말까지 6개월간 추가 감면…총 1,803억 원의 감면 효과 전망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9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기존 주요 지원대책 >

◈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3.18)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방안 발표(3월~5월, 3개월간)
* 착륙료(10~20%)·정류료(100%)·계류장사용료(20%) 감면
** 계류장사용료 감면율 상향(20→100%, 4.2)
◈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4.23) 감면기간 연장(5월 종료 → 8월 종료, 3개월 연장), 납부유예('20.3~8월분, '20.9~'21.2월 납부)
◈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20.8.27) 감면기간 연장(8월 종료 → 12월 종료, 4개월 연장), 납부유예('21.2 → '21.6월, 4개월 연장)
◈ (항공사업자, 취급업자 추가지원, '20.12.29)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한 연장(~'21.6월말), 착륙료(10~20%),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100%) 감면

ㅇ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3월에서 '21.6월까지 항공분야(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1,223억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2,555억원), 기타시설 임대료 감면(604억원)과 납부유예(4,194억원 등) 총 1조 8천 5백억원 이상을 지원하였다.

ㅇ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항공업계는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국내선 확대 및 화물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도 병행하여 왔다.

ㅇ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조치* 등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21.4월 기준, '19년 대비 97.6%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 입국금지 51개, 격리조치 9개,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118개 등 178애국('21.5.25기준)

- 특히, 저가항공사(LCC)의 경우 화물운송 확대가 곤란(화물기 미 보유)하고 국내선 매출 비중이 적어 피해회복에는 역부족인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항공 여객실적(단위 : 천명, %)】

구분	'19년 5월	'20년 5월	'21년 5월	'21/'20(%)	'21/'19(%)
국제선	7,433	137	204	48.8%	△97.3%
국내선	2,870	1,887	3,114	65.0%	8.5%

□ 이에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추가연장 〉

□ 지난 12월 29일 '항공사,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발표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20.3월~'21.6월)'을 '21년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 착륙료(10~20%),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100%) 감면

○ 이에 따라, '21.7월~12월까지(6개월) 약 580억 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803억 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	지원사항		당초	추가 연장	기대효과
감면	착륙료	10~20%	'20.3~'21.6월	'20.3~'21.12월	580억원 * 추가 감면 (누적) 1,223억 → 1,803억
	정류료	전액			
	계류장사용료 (지상조업사)	전액			

□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당분간 획기적인 국제선 운항재개가 곤란한 점,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도 올해말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 트래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044-201-4185) | 게시일 : 2021.06.28.)

[해양수산부] 코로나 이후 시대 국내 크루즈 산업 재도약 준비한다

- 해양수산부, 6월 아시아크루즈협의체 가입 연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크루즈 관광객 확대 및 국내 크루즈 산업 재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 아시아크루즈협의체 가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크루즈협의체는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4년 처음 설립되었으며, 회원국 간 크루즈 항로 개발과 크루즈 관광 인구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현재 협의체에는 우리나라와 홍콩, 대만, 필리핀, 중국(샤먼, 하이난)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에 가입하였다.

□ 그간 정부는 아시아크루즈협의체 회원국과 함께 매년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 박람회(Seatrade Cruise Global(미국))를 비롯한 국제 크루즈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 마케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며 주요 크루즈선사들의 운항 경로에 우리나라의 기항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한국-대만 간 신규 크루즈 항로를 개척하여 20여 항차의 크루즈를 운항하고, 5만 명 이상의 대만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아시아크루즈협의체 가입 연장을 계기로 부산, 인천, 제주, 속초, 여수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크루즈 기항 도시와 함께 지자체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교통 편의를 강화하는 등 기항지로서의 매력을 한층 증가시키고, 접안료 감면 등 크루즈 혜택을 마련하여 해외 크루즈 기항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에 개최될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 박람회(Seatrade Cruise Global)에도 지자체와 함께 참여하여 우리나라 기항지가 해외 크루즈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내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2019년에는 외국 크루즈 관광객을 26만여 명 모객하고, 속초항, 부산항, 인천항 등에 크루즈 부두와 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내 크루즈 수요를 늘리기 위해 4년간 500여 명 규모의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2017년 1만 5천여 명 수준이었던 국내 크루즈 관광객이 2019년에는 2배 이상인 3만 6천여 명으로 증가한 바 있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크루즈 관광이 중단된 바 있으나,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외 크루즈관광객 유치와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크루즈 여행을 위한 크루즈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로 침체된 국내 크루즈산업의 회복을 위해 연안크루즈 사업 등도 모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전준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크루즈 입항 금지 조치(2020. 2.)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크루즈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아시아 크루즈협의체를 통해 회원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 이후 시대의 크루즈 산업 재도약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77) | 게시일 : 2021.06.28.)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방문 전 이용객 혼잡도 확인은 필수!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6가지 해수욕장 이용방법 소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지난 6월 발표한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기반으로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소개하였다.

□ 7월 1일에는 지난 6월에 부분 개장한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해수욕장 7곳과 제주도 해수욕장 12곳, 인천지역 해수욕장 3곳, 울산지역 해수욕장 2곳 등 24개 해수욕장이 개장한다. 전국 277개 해수욕장 중 7월 첫째 주에는 70개, 둘째 주에 79개, 셋째 주에 108개, 넷째 주에 6개 등 순차적으로 7월 내에 263개*의 해수욕장이 개장한다.

* 개장 예정 267개 중 추가로 4곳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미개장을 결정하여 2021년 7월 기준으로 263개 개장 예정

❶ 해수욕장 방문 전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확인하기

ㅇ 먼저, 해수욕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은 인터넷포털 누리집 '네이버(www.naver.com)'나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미리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통해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붐비지 않는 해수욕장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ㅇ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개장하는 전국의 263개 해수욕장에 대해 이용객 혼잡 여부를 알려주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한다. 혼잡도 신호등은 각 해수욕장 면적별로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정보통신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파악한 해수욕장 이용객 수에 따라 혼잡도를 초록색(100% 이하), 노란색(100% 초과~200% 이하), 빨간색(200% 초과)으로 나타내는 서비스이다.

ㅇ 지난해에는 전국 50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개장하는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에 대해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국민들이 이용객 밀집도가 낮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❷ 해수욕장 예약하여 이용하기

ㅇ 해양수산부는 예약을 통해 해수욕장에서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적정 인원만 이용하

도록 하는 사전예약 해수욕장 이용을 추천한다.

- ㅇ 지난해 전남지역 13개소에만 시범 운영하였던 사전예약 해수욕장을 올해는 강릉시 안목 해수욕장, 해남 송호 해수욕장, 태안 바람아래 해수욕장, 포항 도구 해수욕장 등 전국 25개(강원 5, 경남 2, 경북 4, 전남 13, 충남 1)로 확대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 ㅇ 해수욕장 예약은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네이버(www.naver.com) 예약시스템 플랫폼으로 일원화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네이버'에서 '해수욕장 예약'을 검색하면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목록이 뜨고, 방문을 원하는 해수욕장을 선택하여 '예약'을 선택한 뒤 이용날짜, 시간, 인원 등을 입력한 후 '예약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예약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일에 해당 해수욕장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뒤 발열검사를 받고 이용할 수 있다.
- ㅇ 사전예약제 해수욕장은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예약제 콜센터(070-4882-4429)와 바다여행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Q&A)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❸ 해수욕장을 방문하면 꼭 안심콜 등록하기

- ㅇ 해수욕장 이용객은 해수욕장 방문 시, 전국 263개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안심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방문이력을 꼭 등록해야 한다.
- ㅇ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곳곳에 현수막 등으로 안심콜 번호와 등록방법을 안내하고, 해수욕장 주 출입 위치 등에서 방역요원들을 통해 안심콜 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 ㅇ 다만, 이용객이 밀집되고 출입 관리가 어려운 해수욕장에서 이용객마다 안심콜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여건인 만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자율적으로 안심콜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홍보도 병행한다.

❹ 체온스티커 부착 등 발열관리에 협조하기

- ㅇ 해수욕장 이용객은 코로나19 증상 확인을 위해 각 해수욕장마다 실시하는 체온스티커* 부착 또는 대면 체온 측정 등을 해야 하며,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해수욕장 이용을 멈추고 코로나19 검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이용객 손목 등 신체에 부착하여 37.5℃보다 높으면 스티커 색상이 변하는 간이 체온계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실시간 체온변화 확인 가능

○ 체온스티커는 쉽고 빠르게 발열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이나 주말 및 성수기 등 이용객이 붐비는 시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12개 지정 해수욕장과 대천, 경포, 망상, 신지명사십리,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등 전국 26개 해수욕장(제주12, 울산2, 충남3, 강원 4, 전남 1, 전북 2, 부산 2)에서 체온스티커를 통해 발열을 확인하며, 그 외 해수욕장에서는 출입할 때나 파라솔 현장배정 시에 체온을 측정한 후 안심 손목밴드 착용 등의 방법을 실시할 예정이다.

❺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하기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객이 적어 밀집·밀접 접촉이 낮은 '한적한 해수욕장'을 이용을 추천한다.

○ 지난해 한적한 해수욕장(23개소) 선정을 통해 이용객 분산효과*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올해는 '한적한 해수욕장'을 50개소로 확대하고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 2020년 한적한 해수욕장 홍보로 2019년 대비 해당 해수욕장 이용객 비중이 2배 이상 증가

❻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쓰기 및 야간시간 취식행위 금지하기

○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야간시간에 음주 및 취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해양수산부는 이용객 간 밀집·밀접접촉이 이뤄지는 해수욕장 내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자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였다. 다만 해남의 송호해수욕장과 같이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백신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백신접종자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백신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대형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음주 및 취식행위를 통한 비말전파 및 접촉 등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부산은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에 대해 지난 6월 행정 명령을 발령한 바 있고,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맞춰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등이 있으나, 해수욕장에서는 기존과 같이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해수욕장 이용객들도 방문 전에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하여 혼잡한 해수욕장 이용을 피해주시고, 해수욕장에서의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263개 해수욕장에 대해 개장 전·후 해수욕장 방역사항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며, 7월 3일 개장하는 대천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체온 스티커 배부 및 안심콜 등록 안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도,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4) | 게시일 : 2021.06.30.)

[서울특별시] 서울시, 시민과 함께 찾은 외국어 표기오류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 5.17~6.15까지 외국인 현장점검단과 시민 캠페인 통해 총 643건 오류신고 접수
- 서울시 외국어 자문위원회 검수 거쳐 총 559건 오류 결정, 8월말까지 긴급보수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접수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관광시대 준비

□ 서울시가 30명의 외국인 현장점검단과 시민 캠페인을 통해 서울시 내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류표기로 판정한 559건의 표지판을 8월말까지 긴급 보수한다.

ㅇ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30명의 외국인 현장점검단과 시민 캠페인을 통해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오류표기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 결과 643건의 오류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서울시 외국어 자문위원회의 검수를 거쳐 최종 559건을 표기오류로 판정하였다.

□ 서울시 외국어 자문위원회의 검수를 통해 최종 오류표기로 판정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중부경찰서' 영문 표기를 'Seoul Regional Labor Administration'로 표기한 경우이다. 경찰서가 지방노동청으로 잘못 표기되었고, 'Jungbu Police Station'이 맞는 표현이다.

ㅇ 또한, '탑골공원'을 'Tapgolgongwon'으로 표기한 경우 'Tapgol Park'가 맞는 표현으로 'park' 대신 로마자로 표기하여 공원이라는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이다.

ㅇ 그 밖에도 공식 기관명 대신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거나, 단순 오타 또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정비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 붙임 1 : 다국어 표지판 점검을 통해 찾아낸 주요 표기오류 사례

□ '외국인 현장점검단'은 영어권, 중화권, 일어권 등 언어권별 10명, 총 30명을 모집하여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홍대, 청계천, N서울타워 등 서울 관광명소 10곳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총 475건의 표기 오류(영어 168, 중국어 169, 일본어 138)를 접수하였고, 이 중 421건에 대해 표기 오류로 결정하였다.

□ '오류 표지판 신고 시민 캠페인'은 올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도입하여 총 168건(영어 44, 중국어 28, 일본어 96)이 접수되었다. 서울시는 이 중 138건을 오류로 판정하였고, 우선 접수된 100건에 대해 1건당 1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선정 명단은 28일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문화-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시민들이 서울시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ㅇ 2021년 서울시 외국인 현장점검단에 참여한 왕준용(王骏龙, 중국)씨에 따르면 평소에 서울시를 다니다보면 가끔 길에서 어색한 표시를 발견하거나 잘못된 외국어 번역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였다고 말했다.

ㅇ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확한 표지판 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서울이란 도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관광지인 만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꼭 한 번 서울에 와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희망했다.

□ 서울시는 외국어 표기 오류로 확정된 표지판은 8월말까지 긴급보수를 완료하여 서울을 관광하는 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을 통한 추가적인 오류신고가 있을 경우 상시 정비할 예정이다.

□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첫인상과 다름없는 만큼, 표기 오류가 없도록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시민 캠페인을 새롭게 추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신 만큼 서울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02-2133-2796) | 게시일 : 2021.06.28.)

[부산광역시] 부산시,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신규취항 항공사 공모」 실시

- 6.30.~7.14. 항공노선 정상화 및 중장거리 전략노선 개설 추진을 위해 「2021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신규취항 항공사업자 공모」 실시
- 중장거리 여객 노선 대상, 선정된 항공사에 신규 취항일로부터 최대 1년간 10억 원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타격 입은 항공·관광분야 정상화 추진

□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오늘(30일)부터 7월 14일까지 「2021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신규취항 항공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는 최근 국내외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며 일상으로 복귀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김해공항의 국제선 항공노선 정상화와 중장거리 전략노선 개설을 위해 추진한다.

□ 이는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공모대상은 공고일(6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김해공항 미취항 노선 중 공고일 이후 신설되는 정기편(왕복 주 2회 이상)으로 김해공항을 기·종점으로 하거나 경유하는 중장거리* 여객 노선을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국·내외 항공 사업자이다.

* 중거리 2,500~5,000km, 장거리 5,000km 이상

□ 항공사업자 선정은 공모 마감 후 항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항공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노선 적합성, 항공사 평가, 운항계획,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 선정된 항공사는 신규취항 이후 평균 탑승률*이 기준탑승률(80%)에 미달하여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운항편당 500만 원의 지원금을 '21년 예산 범위(1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평균탑승률 : 운항기간 동안의 전체 탑승객수 / 공급 좌석 수

□ 부산시는 지난해 4월,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중지된 이후, 입국자 검역·수송·격리 등 만반의 대응체계를 마련한 끝에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중국~칭다오 노선(주 1회)의 입국을 재개한 바 있다.

□ 올 6월 말까지 해당 노선은 총 2천480명의 입국자를 처리하였으며, 그간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입국자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코로나 이전의 국제선 운항 수준*을 조속히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전략적으로 노선 개설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신규취항 일정에 차질을 빚었던 유럽, 동남아 중장거리 노선의 신규취항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항공

사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13개국 40개 도시 1,258편/주 ▷ 중국(14), 동남아(16), 일본(6), 기타(4)

□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지역 인구 대비 1차 백신 접종률이 30%를 넘는 등 일상으로 복귀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항공·관광 분야도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를 진행한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우리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중장거리 노선을 취항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공항기획과(051-888-4542) | 게시일 : 2021.06.30.)

[경기도] 국내여행객, 지난해 경기도 4천500만회 방문. 2년 연속 전국 최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년 국민여행조사' 결과 국내여행지 전국 1위 경기도
- 당일 여행지 전국 1위,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전국 1위 등 인기 여행지 증명
- 청정계곡, 경기바다 등 경기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 국민의 관광명소 조성

□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 여행 분석 결과 경기도 방문이 4,500만여회로 2년 연속 전국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0년 국민 여행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지난해 경기도를 방문한 국내 여행 횟수는 4,549만6,000회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위 강원도(2,236만2,000회)의 2배 이상이다. 경기도는 2019년에도 국내여행 횟수 5,236만5,000회로 전국 1위였다.

□ 국내 여행을 숙박과 당일로 나눴을 때 당일 여행 횟수에서 경기도가 3,641만회로 전국 최다로 나타났다. 이는 2위 경상남도 1,232만8,000회의 약 3배다. 숙박 여행 횟수에서 경기도는 908만5,000회 전국 2위로 집계됐으며, 전국 1위는 강원도 1,464만3,000회다.

□ 또한 전 국민의 여행지별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도 경기도가 1.00회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국내여행 시 경기도를 평균적으로 한 번은 방문한다는 얘기다. 2위는 강원도 0.49회다.

□ 관광객 방문이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1인 평균 지출액'에서는 경기도 방문 시 6만3,000원으로 전국 3위였다. 1위는 제주도 8만1,000원, 2위는 강원도 7만4,000원이다.

□ 이번 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1년간 만 15세 이상 국민 5만400명을 매달 면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표본으로 삼아 전 국민 수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도는 이번 결과를 두고 코로나19로 여행객들의 시선이 국내 여행으로 집중된 가운데 경기도가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누구나 즐겨 찾는 여행지임을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 도는 민선 7기 들어 수원 화성, 양평 두물머리, 파주 임진각 등 전통적으로 관광객이 선호하던 관광지뿐만 아니라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청정계곡 복원, 경기바다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국내관광 저변을 확대해 왔다.

□ 또 장애가 관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내 주요 관광지에 무장애 관광시설을 확충

하는 한편,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관광정책에 참여하는 공정관광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우수국가 간 관광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시행을 앞두고 여행업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최용훈 경기도도 관광과장은 "경기도는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국내 여행지"라며 "특히 청정계곡과 경기 바다는 경기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코로나 시대 계곡과 바다에서 안전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 이벤트, 관광 정보를 더욱 알차게 채워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광과(031-8008-3334) | 게시일 : 2021.07.04.)

[강원도] 강원도 5월 관광, 야외 안심관광지와 킬러콘텐츠로 방문객 증가

- 전월대비 인제 설피마을(191%), 양구 박수근미술관(99%) 방문 급증

□ 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은 이번 5월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금년 5월 강원도 방문 내·외국인을 합산한 도 방문 전체 관광객은 1,127만여 명으로, 야외 안심관광지와 지역만의 특화된 관광지 및 콘텐츠에 관광객이 증가하였다고 29일 밝혔다.

□ 주요 관광지(POI)의 금년 4월 대비 관광객 추이를 보면, 100% 이상 관광객 수가 증가한 곳은 자연관광지가 대부분이며, 그 수는 28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강원도 방문 관광객들이 여전히 자연중심의 야외 안심관광지를 많이 찾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 특히, 5월 주요 관광지 세부분석 중 점봉산 곰배령 자락에 위치한 인제 설피마을과 평창 용평리조트의 전망대(스카이워크) 사례와 같이 자연 자체가 희소성을 지닌 강원도만의 관광자원임을 증명하고 있다.

□ 또한 양구 박수근미술관 사례를 통해 故 이건희 회장 기증작품 특별전과 같은 킬러콘텐츠가 지역 방문객 증가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인근 관광지 방문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었다.

□ 시군별 전월대비 관광객 증가율에서는, 평창군이 약 36.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순이다. 반면 감소율은 동해시(2.4%)에서만 나타났는데 묵호항과 동쪽바다중앙시장의 관광객 감소(평균 29%)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 관광객 출발지별 동향을 보면, 경기도 남양주시가 31만여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으로 방문하였다. 특히,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처음으로 상위 20위권 내 모든 출발지로부터의 월 방문객수가 1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 규모가 점차 안정세를 갖추어 가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 관광소비 면에서는, 약 1,624억 원의 소비규모로 금년 4월 대비 약13.7% 상승한 196억여 원의 소비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소비 중 음식 소비가 1,1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금년 4월 대비 약14% 상승한 140억여 원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외에 관광소비는 숙박, 레저, 교통 순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관광재단 정태훈 스마트관광팀장은 “이번 관광동향은 강원도에 특화된 야외 안심관광지 및 콘텐츠의 경쟁력을 검증하는 데이터 분석이 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 강원도관광재단(033-269-8947) | 게시일 : 2021.06.29.)

[충청북도] 충북도·한국관광공사·티맵, 충북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전국최초 T map 연계"충북 아름다운 길"추진

□ 충청북도는 29일(15시) 도청 문화체육관광국장실에서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티맵모빌리티(주)와 충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박해운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승환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장, 이종갑 티맵모빌리티(주) T map Life 그룹장이 참석했다.

□ 이날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충북 관광 활성화 및 충북 인지도 향상, 충북 방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T map 연계 “충북 아름다운 길”서비스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충북 아름다운 길”은 전국최초로 도내 추천 드라이브 코스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시군별로 나누어 11개의 드라이브 코스를 제공하며, 티맵을 통해 코스별 3~4곳의 관광 포인트를 거쳐 가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이날 협약으로 충북도는 드라이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당사자 간 협력 강화를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드라이브 서비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맞춤형 관광 경로 개발·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 티맵모빌리티는 드라이브 서비스 개발 및 운영, T맵 플랫폼을 통해 드라이브 코스가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협약기관은 업무협의와 내비게이션 개발 등을 거쳐 8월중 “충북 아름다운 길”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오픈하여 향후 1년간 지원한다.

□ 또한 9월 중순부터 한 달간“충북 아름다운 길”이용자를 추첨하여 모바일 경품 지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 충북도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안전한 여행,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 소규모 비대면 관광트렌드를 반영한‘충북 아름다운 길’ 추진으로 충북 관광 활성화 및 충북관광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관광항공과(043-220-4003) | 게시일 : 2021.06.29.)

[충청남도] 발전소에 묻힌 해수욕장, 관광거점 부활 첫 발

- 1978년 매립 서천 동백정해수욕장, 착공식 갖고 본격 복원 추진
- 폐석탄화력 부지 복원 세계 첫 사례…"정의로운 전환 표준 모델"

□ 서천화력발전소 건설로 파묻힌 동백정해수욕장이 발전소 폐쇄에 따라 복원되며, 서남부 관광거점으로 부활한다.

□ 폐석탄화력발전소 부지가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는 세계 최초 사례로,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및 생태복원과 부합하는 최적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 양승조 지사는 28일 옛 서천화력발전소 부지에서 열린 동백정해수욕장 복원공사 착공식에 참석, 역사적인 사업 본격 추진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다.

□ 동백정해수욕장은 1965년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지정된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과 동백정을 곁에 두고 서해안 최고 비경을 뽐냈다.

□ 한때 대한민국 4대 해수욕장으로 꼽혔다는 동백정해수욕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1978년 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매립됐기 때문이다.

□ 서천화력발전소는 1984년 준공해 33년 동안 가동하다 2017년 9월 폐쇄된다.

□ 발전소 폐쇄 이후 지역민과 서천군, 한국중부발전은 사후 활용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사업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 이에 따라 중부발전은 2023년까지 3년 동안 6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발전소를 해체하고, 27만 2306㎡ 면적의 매립층 및 해수욕장 복원을 추진한다.

□ 또 63억 원을 추가 투입해 전망대와 짚라인, 생태공원 등 부대설비를 설치한다.

□ 부지 복원 기간에는 300실 규모의 리조트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 도는 이번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충남 서남부 해안 새로운 관광거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중부발전이 마련한 이날 착공식은 지역 주민과 양 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양 지사 축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동백정해수욕장 복원공사 착공이 서천의 매력을 되찾고, 충남

의 가치를 회복하며, 바다와 공존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양 지사는 이어 “지난해 12월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를 시작으로, 2050년까지 도내 28기의 화력발전을 폐쇄할 계획이며, 이 폐쇄 부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대체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서천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표준이자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양 지사는 또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시 아름다운 관광지로 거듭나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지역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아름다운 동백정해수욕장이 옛 명성을 되찾고, 이를 발판으로 서천군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청남도, 에너지과(041-635-3456) | 게시일 : 2021.06.28.)

[전라북도] 전북만의 특색있는 유니크베뉴 5개소 선정

- 보석같은 장소를 찾아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5개 선정

  (팔복예술공장, 내장산생태탐방원, 태권도원, 순창 쉴랜드, 고창 상하농원)

- 마이스 행사가 넘실거리면, 지역공동체도 덩실덩실

□ 전라북도는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마이스 행사 장소를 발굴하고, 마이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5개소(공공 4, 민간 1)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 (선정장소) 전주 팔복예술공장, 정읍 내장산생태탐방원, 무주 태권도원, 순창 쉴랜드&건강장수연구소, 고창 상하농원 (시군 순)

*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격년)한 2020~2021년 코리아 유니크베뉴(한국소리문화의전당, 왕의지밀)도 전라북도 유니크베뉴에 포함하여 전라북도 유니크베뉴는 총 7개소임

유니크베뉴(Unique Venue)란?

마이스(국제회의,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이벤트) 개최 도시의 전통 컨셉이나, 그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지칭

ㅇ 그간 전북도는 시·군, 전북문화관광재단 등으로부터 유니크베뉴 후보지를 추천(3~4월) 받아 서면검토 및 현지실사(5~6월), 선정심사위원회 최종 심사(6.28.)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ㅇ 선정된 유니크베뉴*에는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선정증서를 수여한다. 전북도는 국내 마이스 박람회 참가, 마이스 관계자 팸투어,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하며, 2022년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하는 코리아 유니크베뉴에도 직접 추천할 계획이다..

- 또한 하반기부터 마이스행사 개최시 전라북도 유니크베뉴를 활용하는 마이스 행사의 경우 인센티브 추가 지급(1인당 3천원)*이 가능하다.

* <인센티브 지급기준>
ㅇ (현행) 국내(관외) 또는 국외 10명 이상, 도내 숙박시설 1박이상 마이스행사
→ 1인당 최대 2만원,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
ㅇ (유니크베뉴 활용시) 1인당 최대 3천원 추가 지급
→ 1인당 최대 2만 3천원, 최대 2천 3백만원까지 지급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시설별 소개〉

① 팔복예술공장 (공공시설, 전주문화재단 운영)

- 전주시에서 25년간 방치되어 온 폐 카세트테이프 공장의 외형과 일부 구조물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18. 3. 2.)한 곳으로 스토리텔링이 풍부함
- 이팝나무홀에 최대 8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나, 이팝나무광장(야외)를 활용하면 150명 정도 마이스 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숙박은 인근(860m)에 더메이호텔(33실)이 있고, 전주시내 다른 호텔과도 연계가 가능혐, 전주IC에서 6.4km로 접근성이 좋음

② 내장산생태탐방원(공공, 내장산국립공원공단 운영)

-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북 유일의 시설(전국 8개소)로 내장산 국립공원 내 위치하고 있어 생태관광 및 체험 운영 가능하며, 자체 숙박시설(18동, 84명 수용)을 보유하고 있음
- 대강당(120여명 수용) 등 다양한 규모의 회의시설이 있으며, 대규모 주차장 보유하고 있고, 회의실 마다 줌(화상회의 앱) 연결이 가능함
- 인근 솔티마을 주민을 생태관광 강사, 다도강사로 활용하는 등 지역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내장산 IC에서 10km이며, 정읍 KTX역에서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편임

③ 태권도원 (공공시설,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 약 1,200명 수용 가능한 숙박 연수동과 20개의 규모별 회의시설 보유하여 대규모 마이스 행사가 가능함

※ 2017년 한국 마이스협회 가입,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 및 담당 인력 보유

- 태권도 등 관련 컨퍼런스 및 세계태권도 대회 등 다수의 행사 유치 및 진행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자체 식음시설 보유하고 있고, 야외공간 및 연회홀에서 외부 케이터링도 가능
-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회의, 숙박, 식음을 비롯한 대부분의 편의시설 보유하여 중·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춤

④ 쉴랜드 & 건강장수연구소(공공,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운영)

- 쉴랜드 내에 위치한 건강장수연구소 등의 시설과 연계한 건강 관련 행사 및 기업연수 등에 적합하며, 치유 명산관 및 넓은 야외공간을 이용한 건강, 힐링 관련 프로그

램 연계가 가능

※ 야외공연장, 편백숲, 치유명상관, 식문화실습관 등 다양한 시설에서 테마형 마이스행사 가능

- 숙박시설의 다양한 형태(펜션형·호텔형·단체숙박형)를 보유하여 약 100명 내외 인원 자체 숙박이 가능하고, 100여명 수용이 가능한 자체 식당이 있으며, 요리 실습실을 보유해 건강을 주제로 한 체험과 식사 연계가 가능함

-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보유(22개)하고 있어 수요자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⑤ 상하농원(민간, 상하농원(유) 운영)

- 드넓은 농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머스테이블(식당) 등을 활용하면 대규모 마이스행사 개최가 가능

- 농촌 체험, 요가&명상, 생존수영, 트래킹 챌린지, 김장, 장담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천스파, 수영장(600명 수용 가능, 국제경기 가능한 규모), 체험농장 및 글램핑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숙박시설은 파머스빌리지 3개소(8인, 16인, 24인)가 있으며, 주변 고창읍성한옥마을(한옥체험숙박시설, 60명 수용)도 이용 가능함

- 또한, 제빵 공방 운영, 로컬푸드 판매장 등을 통해 지역생산품 활용·판매로 지역 상생을 실천하고 있음

ㅇ 아울러, 유니크베뉴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예비 유니크베뉴도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도내 마이스 행사 유치 홍보시 예비 시설도 포함하여 알리기로 했다.

- (선정장소)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완주 오성한옥마을, 진안고원치유숲 (시군 순)

□ 전라북도 윤여일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채로운 마이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전북도만의 매력적인 유니크베뉴를 발굴하여 선정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곳곳에서 활기찬 행사들이 넘쳐 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전북 마이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관광총괄과(063-280-2705) | 게시일 : 2021.06.29.)

[전라남도] 전남도,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총력 대응

- 문체부 현장조사…순천광양장성영광 사업 반영 노력 지속키로

□ 전라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에 순천시, 광양시, 장성군, 영광군, 4개 시군의 사업계획안이 반영되도록 온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25일 문체부 조사단이 현장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 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10명의 전문가, 연구진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은 지역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안 반영을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입지 여건, 교통, 자원성, 연계성 등 지역 상황을 살피고, 지역 제안사업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활용 가능한 추가 부지를 확인했다.

□ 조사단은 순천에서 웰니스 토탈힐링 치유관광거점 조성 사업 브리핑을 듣고 해양치유센터 부지를 확인했다. 순천시는 현장 조사단에 빠른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1단계 사업으로 추진토록 지원을 요청했다.

□ 광양에서는 폐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조해 지난 3월 개관한 광양예술창고와, 장미 코스모스 등 계절별 피는 꽃이 다양한 서천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망덕포구를 잇는 현수교식 보도교와 망덕산~배알도 수변공원을 둘러봤다. 지역 공동브랜딩과 연계 상품화를 통해 연구진 제안사업인 '소소관광 12선 프로젝트'로 반영할 예정이다.

□ 다도해 순례 상품화 사업 후보지인 장성군은 정관스님(백양사 천진암 주지, 사찰음식의 대가) 전통사찰음식을 테마로 순례자의 밥상, 교육프로그램, 음식과 연계한 명상 수행프로그램 등을 콘텐츠로 개발하는 음식문화(k-Food) 콘텐츠 개발 사업을 제안했다. 조사단은 축령산과 백양사 걷기길을 연계한 순례자를 위한 쉼터 관광스팟과, 축령산 편백을 활용한 순례 차박지 조성 부지를 확인했다.

□ 조사단은 또 영광에서 4대 종교 문화유적지인 불교 백제불교최초도래지와 기독교의 생생한 역사 순교지인 염산교회를 둘러보고 현장조사 일정을 마쳤다.

□ 문체부는 이번 현장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마지막으로 분석·검토한 후 이달 말부터 서울에서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 연구'와 관련한 협의회를 열어 시·도, 기초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문체부를 지속해서 방문해 도 발굴 사업비 5천365억 원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에 도 발굴사업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문체부, 문광연,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다"며 "전남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이 간절한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월 초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를 한 후 보고서를 수정·보완해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2022년 사업 구체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30) | 게시일 : 2021.06.29.)